

2015. 5.

**2015년 목포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결과보고서
(그리스·터키)**



목포시의회

연수개요 및 주요일정

□ 연수개요

- 연수기간 : 2015. 4 5(일) ~ 4. 14(수) / 9박11일간
- 연수목적 : 시 현안문제[전통시장, 관광케이블카, 도시재생분야]에 대한 자료수집 및 선진지 벤치마킹을 통해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의정활동과 시정정책에 반영
- 연수장소 : 터키 · 그리스
- 연수참여 : 18명 (시의원 13, 의회사무국 직원 2, 목포시청 3)

소 속	직위(급)	성 명
목포시의회	의 장	조 성 오
	부 의 장	고 승 남
	의회운영위원장	이 기 정
	의회운영부위원장	김 휴 환
	도시건설위원장	정 영 수
	도시건설부위원장	임 태 성
	관광경제부위원장	문 경 연
	도시건설위원	강 찬 배
	도시건설위원	최 석 호
	도시건설위원	김 귀 선
	관광경제위원	노 경 윤
	관광경제위원	성 혜 리
	기획복지위원	유 혜 경
의회사무국	7급	허 순 구
의회사무국	7급	송 동 원
목포시청	관광시설물담당	김 영 준
목포시청	전통시장담당	김 현 진
목포시청	도시재생담당	김 진 현

□ 주요일정

일자	도시	시간	내 용
제1일 4/5 일	인 천 이스탄불	10:20 16:10 18:00	인천 출발 이스탄불 도착 ▶피레르롯데언덕 관광케이블카 체험
제2일 4/6 월	이스탄불 아테네	07:40 09:05 10:30 14:00 20:00	이스탄불 출발 아테네 도착 ▶해양관광발전공사 알라뮤요트계류장 방문 ▶아테네 모나스티리키 중앙시장 견학 ▶아테네 노천카페촌 견학
제3일 4/7 화	아테네 에기나섬 아테네 이즈미르	09:00 15:00 20:00 22:00	▶섬관광의 메카 에기나섬 견학 ▶아테네 리비투카스 관광케이블카 견학 아테네출발 이즈미르공항 도착
제4일 4/8 수	이즈미르 파묵칼레	08:55 14:00 14:30 16:30	이즈미르 출발 파묵칼레 도착 ▶파묵칼레 세계자연문화유산 체험 ▶히에라폴리스 유적박물관 견학
제5일 4/9 목	파묵칼레 안탈리아	07:00 13:00 14:00 17:00	파묵칼레 출발 안탈리아 도착 ▶안탈리아 해변관리 및 테마유람선 체험 ▶안탈리아 구도심 재생사업 견학

일자	도시	시간	내 용
제6일 4/10 금	안탈리아 카파도키아	08:00 10:00 17:00	▶안탈리아 시내 도보체험 및 상가견학 안탈리아 출발 카파도키아 도착
제7일 4/11 토	카파도키아	08:00 13:00 14:00 17:00	카파도키아 출발 양카라 도착 ▶양카라 도시케이블카 관리센터 방문 ▶양카라 한국공원 참배
제8일 4/12 일	양카라 이스탄불	08:00 16:10 18:00 18:30	양카라출발 ▶샤프란볼루 전통도시보존 및 활용사례 이스탄불 도착 ▶ 이스탄불 쿼카피 수산시장 견학
제9일 4/13 월	이스탄불	10:00 14:00 17:00 21:00	▶ 한국전쟁 참전용사협회 방문 ▶ 그랜드바자르 시장상인회 방문 ▶ 이스탄불 랜드웰/씨웰 성벽지구 견학 ▶ 보스포러스해협 야경 및 유람선 체험
제10일 4/14 화	이스탄불	09:30 13:30 17:30	▶ 이스탄불시청 도시계획/재생과 방문 ▶ 이스탄불 살라파자르 크루즈항만 방문 아테네출발
제11일 4/15 수	인 천 목 포	09:20 14:00	인천공항 도착 목포도착 도착

일정별 현지 시찰 보고

□ 4월 5일(일) 연수 1일차

오후 : 이스탄불 도착 및 피에르롯티 언덕 관광케이블카 탐방

일요일 새벽 출발하여 12시간의 비행 끝에 이스탄불 아타투르크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투르크족은 훈족의 후예로 터키와 한국의 관계는 발해시대로 올라간다. 발해의 건국에 연맹이었던 돌궐족이 발해 멸망 후 이슬람문화권으로 들어가 세력을 키워 대국을 이루었던 나라가 오스만투르크이다.

투르크족은 유럽과 중동 아시아 중국까지 퍼져있으며 단일민족으로 가장 많은 숫자를 가진 민족으로 번성하였다.

투르크족이 이슬람문화권에 정착하면서 세력을 확대하기 위해 채택한 전략이 이슬람 개종과 다산정책이다. 단순하지만 많은 출산으로 기독교의 세력보다 더 많은 인구로 승부를 건 민족, 결국 아시아와 중동 유럽을 지배하는 대국으로 영화를 누렸다고 한다

아타+투르크는 투르크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으로 1차세계대전 이후 독일, 오스트레일리아, 오스만투르크가 전쟁에 패배하면서 터키 독립과 언어보급에 크게 기여한 터키 초대대통령으로 터키국민 모두가 존경하는 대통령이며 공항이 개항되었을 때 아타투르크의 업적을 기리는 의미로 명명되었다고 한다.

현지시간으로 오후4시 공항에 내려 게이트로 나서는 순간 담배연기로 숨이 막힐듯하였다. 친한 사람들과 담배를 나누어 피우는 것이 그들의 문화라고 한다. 그래서인지 터키는 국민평균연령이 42세로 세계적인 단명국가라고 한다

공항을 출발 이스탄불의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바로 피에르롯티 언덕에 올랐다.

관광지를 개발하면서 스토리텔링을 이야기하곤 한다.

피에르롯티언덕은 영국군 장교겸 소설작가였던 뵘에르롯티가 터키에 복무하면서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하는 뵘에르롯티 언덕에서 터키인 여인을 만나 사랑에 빠지게 되었으나 군명령에 의해 영국으로 복귀하게 되었다

이후 군생활을 마치고 터키로 돌아와 그녀를 찾았으나 그녀는 죽음을 맞이

한 후였고 삐레르룻티는 언덕에 집을 짓고 평생 자살한 여자친구를 그리워하며 소설을 쓰게 되었고 그소설은 베스트셀러가 되었다고 한다.

지금은 연인들이 찾는 이스탄불의 관광명소가 되었고 관광객을 위해 관광케이블카가 설치운영중이다.

피에르룻티 관광케이블카는 1980년 처음 설치되어된 편도거리 400미터 2선 왕복형으로 캐빈탑승인원은 8명이며 운영시간은 09:00~22:00시까지이며 운영인력은 10명으로 티켓발권은 무인자동발급기를 활용 운영 인력을 최소화 하였다고 한다.



관광목적으로 운영되어서인지 짧은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입장료가 10유로로 적은금액이 아니었다 가이드말에 의하면 평소에는 한시간 이상 줄을 서야 탑승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다행히 우리가 찾아간 시간은 많은 시간을 기다리지 않고 탑승할 수 있었다. 관리센터 직원의 권유로 올라갈 때는 도보로 내려올때는 케이블카를 탑승하였다.

언덕을 오르는 길은 관광상품을 파는 가게들이 줄을 서 있었고 언덕으로 올라가는 공동묘지 사이로 관광객들이 오르내리고 있었다.

특이한 점은 묘비에 새겨진 명언들을 길옆에 적어놓아 길을 오르며 인생과 죽음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 볼 수 있었다. 또한 흡연을 권장하는 문화적 차이 때문인지 언덕을 오르는 길바닥에는 사람들이 버린 담배꽂초가 많이 버려져 있어 관광지 관리에 대한 생각도 하게 되었다.



언덕 위에는 아름다운 말마라바다를 바라보며 차를 마실 수 있는 노상 카페와 기념품을 파는 가게들이 즐비하였다. 수많은 사람들이 언덕에 올라 차를 마시는 모습을 보고 유달산에도 이러한 노상찻집 테이블을 비치하여 연인들이 석양을 보며 차를 마시는 모습을 상상해보았다.



언덕 케이블카 정상까지 동행해준 케이블카관리센터 직원의 안내를 듣고 10분의 탑승시간을 가지며 멋진 유럽의 바다와 야경을 바라보며 내려왔다. 바로 공항에서 가까운 홀리데이인에어포트호텔에 투숙하고 내일 그리스 아테네 일정을 위해 일찍 잠이 들었다

□ 4월 6일(월) 연수 2일차

오후 : 아테네 마리나알라유요트계류장 및 리비투카스 관광케이블카

그리스는 우리나라 교민이 400여명이 거주하고 있고 거주인원이 적어서인지 우리나라와 직항로가 개설되어 있지 않다, 인천공항에서 그리스로 가려면 두 비이를 경우하거나 이스탄불을 경유하여 간다고 한다.

아침 일찍 조식을 먹고 다시 아타투르크국제공항으로 이동하였다.

이스탄불을 떠나 1시간30분 비행 후 그리스 아테네에 도착하였다.

의학, 과학, 우주, 신화, 언어, 정치, 경제 등 모든 전문용어들은 그리스에서 파생되고 완성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리스는 고대도시의 중심에 있었다고 한다.

일정대로 해양관광발전공사 산하 마리나 알리유 요트경기장을 방문하였다.

지중해의 요트산업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발전되어 있었다.

항구로 이동하는 사이에 바닷가 주위에는 수많은 요트들이 바다와 땅을 채우고 있었다. 또한 요트주차장, 엔진관련 가게, 요트매매상사 등 많은 요트 인프라를 볼 수 있었다. 요트는 중동과 지중해 여러국가의 부자들이 거금을

들여 구입하여 항구에 보관한다고 한다. 보관료는 1년에 보통 4,000만원정도이며 규모나 크기에 따라 금액은 천차만별이라고 한다.

우리가 방문한 알리류요트계류장은 해양관광발전공사에서 관리하는 계류장으로 외부인의 입장이 철저히 통제된다. 고가의 요트 수천대를 관리하다보니 계류장은 요트를 수리하는 망치소리와 관리인부들로 가득 차 있었다. 대단한 인력창출 효과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되었다.



간단한 브리핑을 받고 계류장과 요트교육장을 둘러 사진촬영 후 다음 일정을 위해 모나스타리키 중앙시장으로 이동하였다.

모나스티리키 시장은 아테네에서 최고로 큰 시장이라고 하였는데 막상 도착해보니 우리 자유시장 규모로 특이한 점은 식육과 어시장 채소과일등 시장 구역이 구분 되어있고 시장바깥쪽으로는 장터와 같이 잡화나 농기구를 파는 가게들이 모여 있었다.

시장운영시간은 새벽3시부터 오후4시까지로 시장상인들도 오후면 문을 닫고 휴식을 취한다고 한다. 한국에 다녀온 적이 있다는 시장관계자는 한국사람들은 일을 쉬지 않고 너무 열심히 한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터키에서도 한국전쟁참전용사협회를 방문 하였을때도 한 참전용사는 한국인은 밤낮없이 일한다는 말을 하였다. 열심히 일한다는 말은 여유가 부족하다는 뜻이었다.

따뜻한 햇볕과 넓은 땅 모든 것이 풍요로운 지중해는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까지 여유롭게 만들어 주고 있었다.

시장통로는 현대화가 이루어진 우리 전통시장에 비하여 우수하진 않았지만

식육시장과 수산시장은 시장의 특성상 물사용이 많은데 바닥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볼록한 형태의 통로를 만들어 통로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배수를 원활하게 만들어 놓았던 부분이 마음에 들었다. 또한 해산물가게 간판도 멋스러운 느낌이 들었다.

시장은 적지만 아테네 전체에 육류와 야채를 공급한다고 하니 우리시장구조와는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크로폴리스가 바다로 보이는 숙소에서 짐을 풀고 저녁시간 아크로폴리스 야경을 보기위해 올라갔다. 멋진 아테네의 야경을 바라보고 호텔로 내려오는길에 호텔주변의 노천카페들이 모여있는 곳을 구경하였다.



마치 유달산 아래 골목과 같은 구조로 노천카페들이 즐비하고 연인들이 데이트를 하기위해 모여들어 카페는 은은한 조명으로 장식하고 기타를 치며 라이브로 노래하는 가수들이 있는 카페는 매력적이었다. 우리 유달산 아래

골목에 이러한 볼거리를 만들어 본다면 좋은 관광아이템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다.



2일차 새벽 목포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연락을 받았다. 동료의원의 부고 통보를 받고 전체 의원들 회의를 통해 의장과 부의장은 아침 일찍 한국으로 돌아가기로 결정 하였다.

항상 애정을 가지고 지역발전에 노력하였던 故 김영수 의원의 영전에 명복을 빈다.

□ 4월 7일(화) 연수 3일차

오후 : 에기나섬 방문 및 리비투카스 언덕 관광케이블카 탐방

아침 일찍 의장과 부의장은 서둘러 한국으로 떠나고 의원들의 분위기도 많이 침체되었지만 일정대로 아침 일찍 에기나섬으로 출발하였다. 에기나섬은 아테네 피레우스항에서 1시간30분 거리로 제주의 우도와 같은 규모였다.





항구에 내리자마자 새하얗고 작은 지중해풍 교회가 눈에 띄었다. 작고 예쁜 배들과 바닥까지 보이는 지중해의 맑은 바닷물 그 자체가 관광 상품이였다. 여름이 되면 유럽의 사람들과 그리스사람들은 해수욕과 선텐을 즐기기 위해 에기나섬을 찾는다고 한다. 해변에는 수많은 사람들로 북적이고 섬 자체가 축제장이 된다고 한다. 항구에서 마을로 들어서는 곳에 4륜 오토바이를 빌려주는 곳이 있었는데 시간당 20유로의 비용을 받는다고 하였다. 물론 면허증을 소지해야 한다고 한다. 고풍스런 마을을 둘러보고 바다가 보이는 식당에서 식사를 하였다. 현지식 식단은 올리브유를 뿌린 샐러드와 빵, 작은새우 몇마리와 감자튀김이였다. 섬을 둘러보고 느낀 점은 우리의 외달도와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오히려 에기나섬의 해변에 비해 외달도는 한옥민박과 수영장을 갖추어 더욱 현대화된 느낌이 났다. 외달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다면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작고 아기자기한 교회나 파스텔톤의 지중해성 건물 몇 개면 섬의 분위기가 바뀌지 않을까? 사랑의섬 외달도가 작은 그리스의 에기나섬으로 다시 태어나는 생각을 해보았다.



섬을 둘러보고 아테네로 돌아가기 위해 배를 기다렸다. 들어올 때는 카페리를 타고 돌아가는 편은 쾌속선을 타기로 하였으나 응급환자 발생으로 쾌속선이 에기나섬을 생략하고 바로 아테네로 가는 바람에 1시간 이상을 기다려야 했다. 섬에는 병원이 없기 때문에 환자가 발생하면 섬을 운행하는 쾌속선에 태워 바로 피레우스항으로 간다고 한다.

오지 않는 배를 기다리는 도중에도 엠블란스가 환자를 배에 태우기 위해 항구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응급환자가 발생한 경우 바로 항구로 돌아가기 때문에 배가 섬을 경유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그런 상황을 당연히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여유가 부러웠다. 기다렸던 배가 돌아오고 우리는 피레우스 항으로 돌아왔다.

다음 일정으로 관광케이블카를 체험하기 위해 아테네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리카비투스 언덕으로 이동하였다.

리카비투스 언덕 케이블카 운영시간은 아침 8시부터 새벽 3시까지이며 운행시간은 10분이다.

다른 케이블카와 달리 리카비투스 언덕 케이블카는 공중에 설치되지 않고 지하와 지상에 연결되어 외부에서는 케이블카가 보이지 않는다.



케이블카내 스카이뷰를 중심으로 하기보다는 해발 300미터 높이의 언덕에 올라 아테네 시내 전체를 조망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운임은 1인 7유로이며 2개의 고정식 캐빈이 정상까지 상하로 반복 운행한다. 특이한 점은 스카이뷰가 제한된 관계로 하단부 출발 후 지하부분에서 레이저쇼를 하여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한다.

케이블카를 타고 오른 언덕 위에는 아테네 전체를 조망할 수 있으며 사방의 바다와 파르테논 신전 등이 한눈에 들어와 고대에는 군사적으로 중요한 요충지의 역할을 하였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넓지 않은 정상에는 커피숍과 카페, 사원이 설치되어 있었다.

전 세계에서 온 관광객들은 기념사진을 촬영하느라 분주하였다.

당초 일정은 피라우스항구에서 페리를 타고 터키로 이동하는 일정이었으나 페리 일정이 변경되어 우리는 아테네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터키의 이즈미르로 이동 후 숙박을 하게 되었다.

□ 4월 8일(수) 연수 4일차

오후 : 파묵칼레 세계문화유산 체험

4일차 아침 일찍 이즈미르를 떠나 파묵칼레로 이동하였다. 파묵칼레는 세계 최대 석회봉으로 지하수에서 올라온 석회수가 수천년의 시간동안 쌓여 석회 언덕을 이루는데 고대부터 목화의성이라 불리우며 환자들의 치료를 위한 신성한 구역이었다고 하는데 현재는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되었다. 파묵갈레 석회봉 바로옆에는 히에라폴리스라는 세계문화유산이 위치하는데 여기서 발굴된 유적들을 관리하는 박물관을 견학하였다



터키의 대부분의 유적지들이 3차례의 화산폭발로 인해 화산재에 묻히면서 최근 관광자원 개발을 위해 일부 유적들이 발굴되고 있으나 산재한 유적들이 널려있어 일부만 조금씩 발굴하여 공개함에도 그 규모가 엄청나다. 생각은 하게되었다. 태풍에 의한 재난은 거의 없고 지진이 많아 우리가 머문 숙소도 3층으로 건물높이가 낮고 엘리베이터가 없었다. 주차장에는 지진으로 인해 드러난 석관이 바위 위에 드러나 있는 모습을 그대로 방치해놓았다. 터키의 자연과 문화를 가장 쉽게 드러내는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 4월 9일(목) 연수 5일차

오후 : 안탈리아

5일차 새벽5시에 기상하여 고산지대를 거쳐 안탈리아로 출발하였다. 해발 1400미터 이상 되는 산악지형은 눈이 내렸다. 현지가이드의 말에 따르면 요즘 날씨가 이상기후라고 한다. 오후 2시경 안탈리아에 도착하였다.

안탈리아는 해양관광 중심도시로 여름에는 유럽의 사람들이 휴가를 보내기 위해 찾는 휴양지중 1위라고 한다. 안탈리아의 해안가는 절벽이 많았는데 절벽주위에 식당이나 호텔을 지어 아름다운 넓은 바다를 관광객을 유치하는 전략이 뛰어났다.

우리가 안탈리아에 도착한 직후부터 계속해서 비가 내렸다.

안탈리아 해변에 들려 다양한 모양의 유람선을 구경하고 해적선 모양의 테마

유람선을 체험하였다. 테마유람선은 관광객들의 호기심을 자극하여 안탈리아 주요 관광상품으로 자리잡고 있었다. 항구를 떠난 해적선은 타이타닉의 주제가로 유명한 “my heart will go on”과 비틀즈음악등 귀에 익은 노래들을 크게 틀어주고 관광객들이 사진을 찍으며 즐길 수 있는 분위기를 연출해 주었고 서비스음료로 사과차와 쿠키를 내어 주었다.



깍아지는 듯한 절벽위에 호텔과 식당들이 들어선 모습을 보고 어떻게 저렇게 건물들을 지어놓았을까 하는 감탄이 나왔다. 유람선에서 하선 후 해변에서 올라와 1,000여년 전통가옥들이 즐비한 안탈리아 구도시가지를 탐방하였다. 12세기부터 18세기까지 오스만투르크시대에 지어진 건물들을 일부 보수하여 커피숍, 상가나 호텔로 쓰는 경우가 많았다. 또 고대가옥을 보수하는 곳도 많았으나 오래되어 무너져가는 고대가옥을 그대로 방치해둔 곳이 많기도 하였다. 안탈리아는 4월이 비수기라고 한다. 시내로 이동하면서 상가 건물 사이를 우산으로 장식한 곳이 사람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었다. 한국에서 안탈리아 여행기를 읽을 때 어느 블로그에서 사진으로 본 적이 있는 광경이었다. 큰 돈을 들이지 않고 한국에 있는 연수준비단에게 홍보를 하였으니 대성공인 셈이다. 건물 양쪽으로 케이블을 고정하고 우산을 매달고 전등을 설치하여 밤에도 알록달록한 조명효과를 주었다. 똑같이 흥내 내고 싶지는 않으나 볼거리가 된다면 우리도 루미나리거리에 장미의거리에 알록달록한 우산을 걸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였다.



안탈리아의 아름다운 해안을 따라 트램이 지나 다녔다. 터키는 지하철보다 트램이 많이 운행한다. 지진의 영향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다. 안탈리아 트램길은 트램과 오토바이들이 다녔지만 이스탄불 탁심광장 트램은 사람과 오토바이 자전거 차량이 함께 사용한다. 수많은 인파사이로 트램이 지나다니는 걸 보니 인명사고가 날법도 한데 주말 명동보다 많은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는 이곳에서 트램과 차량 사람들이 한데 얽여 자기 갈길을 가는 모습을 처음 보는 우리를 당황케 하였다.

터키는 개와 고양이를 자치단체에서 관리한다고 한다. 귀에 정보를 담은 칩을 달고 있는 개와 고양이는 마치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도록 훈련된 듯하다

작은 마을에서는 고양이들이, 큰도시에서는 개들이 외국인에게 다가가서 꼬리를 흔들고 관광지마다 개들이 축 늘어져 잠을 자고 있는 모습과 관광객들이 사진을 찍으면 다가와 포즈를 취한다.

안탈리아에서 시내를 구경하며 식당으로 이동하는 40여분의 시간동안 4마리의 개가 우리를 안내하듯 따라왔다. 마치 안탈리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하듯이..

바다가 보이는 절벽위 식당에서 고등어튀김과 빵 샐러드를 먹으며 저녁식사를 하고 호텔로 이동후 호텔과 가까운 아타튀르크광장으로 나가 음악분수쇼를 보기위해 기다렸지만 비가 많이 온 관계로 음악분수쇼는 취소되었다.

□ 4월 10일(금) 연수 6일차

카파도키아 세계문화유산 체험

안탈리아에서 앙카로로 이동하는 도중 카파도키아에 1박을 하였다

카파도키아는 리틀 그랜드캐년이라고 불리우는 다양한 기암괴석들로 유명한

지역이라고 한다. 오래전 티비에서 시청하였던 “개구쟁이스머프”란 만화영화에 나오는 스머프집은 프랑스 만화작가가 카파도키아 기암괴석에서 영감을 얻어 만들었다고 한다.



카파도키아 산과 바위는. 도로를 만들기 위해 산을 깎아낸 도로벽은 3차례 화산활동을 그대로 보여준다. 버섯모양의 기암괴석들은 화산재가 퇴적되어 굳은 응애암 위에 수백만년 사이로 2차 3차 폭발로 흘러내린 용암이 굳어 현무암이 남게 되었고 오랜 시간동안 풍화와 침식에 약한 응애암이 먼저 깎이고 단단한 현무암은 남게되어 현재의 버섯모양의 기암괴석들이 남게되었고 단단하지 않은 응애암은 파내기가 쉬워 기독교 박해를 피해 기독교인들은 지하 80미터까지 미로처럼 굴을 파고들어가 수백년을 생활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자연과 문화 역사가 하나의 관광자원이 되었다고 한다. 1960년대 농부에 의해 우연히 처음 발견된 지하땅굴은 현재까지 1,000여개가 발견되었고 서로 미로처럼 연결되기도 하고 아직도 발견되지 않은 지하땅굴이 많다고 한다.

카파도키아의 가장 비싼 호텔은 동굴호텔로 산을 파내고 만들어낸 공간을 호텔로 사용하는데 동굴호텔은 최고급호텔로 가격이 비싸다고 하였다.

야경을 보기위해 올라간 언덕 아래는 동굴호텔의 불빛으로 장관을 이루었다.



아침 일찍 전망을 보기위해 올라간 전망대는 산자체를 파고 깎아 건물의 구조를 하고 있었다. 멀정한 산은 없을 정도로 수많은 구멍을 파놓았다. 4월 임에도 고도가 높아서인지 카파도키아는 눈이 내리고 바람은 불을 깎는 듯 차가웠다. 바위를 파낸 것 외에 인공적인 것이라고는 특별한 것이 없지만 돌과 바위가 경쟁력인 이 도시는 람세스 책에서 이집트의 적국으로 나왔던 히타이트제국의 모습이 생각났다.

카파도키아의 열기구체험, 전통춤공연, 사막투어, 구멍난 버섯바위와 기암괴석등은 터키를 여행하는 필수코스로 카파도키아는 세계인이 모이는 장소가 되었다.

아침 일찍 새벽 100여개의 열기구가 또 오르는 장관을 언덕에서 구경하고자 기대하였지만 거센 바람으로 열기구가 뜨지 않았기 때문에 사진에서 본 멋진 모습을 볼 수 없었다. 길가에 열기구체험 회사에 놓아둔 기구바구니를 보는 것으로 만족하며 다음 도시로 이동하였다.

□ 4월 11일(토) 연수 7일차

앙카라도시케이블카관리센터 , 앙카라한국공원

앙카라는 터키의 수도이나 이스탄불보다 크지 않고 인구도 많지 않다. 원래 오스만투르크제국의 수도는 이스탄불이었으나 1차세계대전 패전 후 터키의 독립을 주도한 초대대통령 아타튀르크는 이스탄불이 유럽과 바다를 사이에 두고 있어 역사적으로 수차례 함락된 점과 이스탄불은 기득권세력의 입지가 강해 대통령력의 권력 강화하고 국경의 3%에 해당하는 유럽대륙과 97%의 아시아대륙으로 구성된 국가의 중심위치인 앙카라를 수도로 정하였다고 한다.

앙카라에 도착하여 앙카라도시케이블카 관리센터를 방문하였다.

앙카라도시케이블카는 2014. 12월 개통 예정이었으나 4개의 승강장중 1개의 승강장에 오류가 있어 개통을 연기하고 시험 운영중 이라고 한다. 시험운영중이라 입장을 통제중이나 관리센터에 승인을 얻어 케이블카를 견학 할 수 있었다.

케이블카는 길이 3.2km로 앙카라 중심부 도심지대를 지상 30미터 높이로 운행하는데 124개의 캐빈이 순환한다. 케이블카가 승강장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도착한 첫번째 캐빈이 출발한다. 두 번째 캐빈은 승객을 싣고 세 번째 캐빈은 승객을 내린다, 네 번째 캐빈은 막 승강장으로 들어온다. 순간 4대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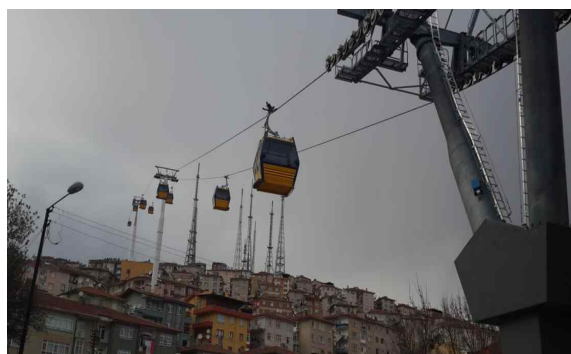
캐빈이 정차하는 구조로 운행 된다.

케이블카 건설비용은 1km당 1억유로(한화 130억)로 총3.2억유로(420억)의 비용이 들었다고 한다. 전체 승강장은 4개소이다. 이용운임은 거리에 상관없이 2리라(한화 900원)이다.



이번 연수중 케이블카 방문지가 3개소로 지금 목포시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고하도-유달산간 케이블카 설치문제에 대해 견문을 확장하고 도입타당성을 참고하기 위함임을 밝혀두는 바이다.

양카라 도시케이블카는 대중교통수단, 관광, 도시미관개선등 다목적으로 도입되었으며 케이블카의 장점으로 도로



개설을 위한 보상문제, 소음, 캐빈 디자인과 세련된 승강장 디자인을 통해 도시미관 향상 등 수도 양카라의 상징적인 관광상품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이를 벤치마킹하여 독일 베를린에도 대중교통수단을 기능을 겸한 케이블카

가 설치중에 있다고 한다.

지금 검토되고 있는 관광케이블카가 추진된다면 유달산에서 고하도로 직행하기 어려운 관계로 어민동산등에 중간 승강장을 세우고 어민동산주위를 관광 명소로 개발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 승강장인 유달산과 종착역인 고하도도 위치적인 특색을 활용하여 관광명소로 개발해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방문 사전조사를 하면서 해안동 어민동산과 님은 그리스의 산토리니섬을 꼭 방문해보고 벤치마킹 할 만한 사항들을 수집해보고 싶었으나 경비문제로 산토리섬 방문은 어려워졌지만 우리지역에 케이블카가 설치되어 운행하는 모습을 상상해보았다. 장밋빛 미래만을 바라보는 것도, 무조건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것도 모두 조심스럽고 다양한 견문으로 미래를 조금이나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목포대교의 야경과 바다가 내려 다 보이는 곳, 전국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석양을 바라 볼 수 있는 곳, 서민들의 이야기가 묻어있는 골목여행과 먹거리와 볼거리 가지각색의 물건들이 판매되는 골목 어민동산주변이 그런 마을로 바뀌고 지역민들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관광객이 모여들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는데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도시케이블카 센터를 방문한 후 바로 앙카라 한국공원으로 이동하여 한국 전쟁 참전 희생자들을 위해 묵념을 올렸다.



앙카라 한국공원은 1973년 고박정희 대통령이 터키를 방문하였을 때 한국 전쟁 참전 희생자를 위해 건립되었으나 고박정희대통령 사망후부터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가 2005년 고노무현대통령이 앙카라를 방문 하였을 때부터 대한민국에서 관리비를 지원하고 관리인력은 참전용사의 후손을 채용 현재 까지 관리중이라고 한다. 또한 서울 여의도에 앙카라공원을 조성하여 터키와 한국의 우호관계를 증진 시켰다고 한다.

터키는 한국전쟁때 4번째로 많은 15,000명을 파병한 나라다. 그중 90%가 자원병이었으며 765명의 전사자가 발생하였다. 터키를 여행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은 한국인에게 너무나 우호적이며 다정하였다. 터키사람들은 우리를 “형제의 나라” 라고 부르지만 우리는 터키에 대해 너무 무관심해 왔던 것에 대해 반성하는 시간도 갖게 되었다.

현재 터키는 광활한 대지와 인구로 현재 중국 다음으로 세계에서 가장 발전 가능성이 있는 나라로 꼽히며 100대 글로벌기업이 선점을 위해 눈독을 들이고 있는 나라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현대전자, 엘지, 기아등 대기업들의 광고판을 자주 볼 수 있었다.

□ 4월 12일(일) 연수 8일차

오후 : 샤프란볼루 및 이스탄불

새벽 4시에 기상하여 식사를 마치고 새벽 5시에 앙카라를 출발하여 샤프란볼루를 거쳐 이스탄불 입성하였다. 이스탄불로 들어오는 도중에 말라라 해안의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2개의 다리중 1개가 붕괴된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다리의 붕괴로 많은 사람이 죽고 다리를 설계한 일본인은 자살하였다고 한다. 물속에 잠겨버린 다리 케이블과 다리 기둥만 있을 뿐 차량이 지나다니던 상판은 물속으로 잠겨버린 상태였다.



현재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세 번째 다리가 건설중이며 우리나라 SK건설이 말라라해협 사이로 수중터널을 건설중이라고 한다.

이스탄불은 한국어로 직역하면 “도시로”라는 뜻으로 경제,문화도시로 터키에서 가장 번성한 경제, 문화, 역사도시이며 이스탄불 시내전역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역사도시로 거주인구는 1,500만명이다

이스탄불에 도착한 직후 탁심광장과 쿼카피수산시장을 방문하였다.

탁심광장은 한국의 명동과 같은 거리로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사람들로 가득찬 거리사이로 택시와 트램, 오토바이들이 지나다니는 것이었다. 또한 시내전역에 시티투어버스가 활성화 되어 관광객들의 이용도가 높았다.



쿵카피 수산시장은 야경명소인 말라라해협을 가로지르는 이층대교(1층은 차량통행, 2층은 술집과 식당, 인도로 구성) 측면에 위치하고 바로 앞에는 말라라바다 사이를 운행하는 여객선터미널이 위치하고 있어 관광객들과 현지인들의 유동인구가 많은 핵심적인 장소로 수산시장은 생선가게가 100여 미터 양쪽으로 줄을 지어 마치 시골장터 같은 구조로 그 규모는 작았지만 지나다니는 사람들은 정신이 없을 정도 많이 지나다녔다. 그 이유는 시장이 위치한 장소가 보스포러스 해협을 바라볼 수 있는 야경명소이기 때문이다.

이 수산시장은 바다 옆으로 원탁테이블과 의자를 배치하여 먹거리시장에 가까울 정도로 생선튀김요리, 고등어케밥, 노천카페등이 준비하여 업무를 마친 현지인과 관광객들이 식사를 하거나 맥주를 한잔씩 즐기는 사람들도 가득 차 있었다.

대부분 유럽의 노천카페와 먹거리 거리는 바다조망권을 두고 자리 잡았다. 삼학도공원이 활성화되고 내항의 선박들이 북항으로 이전하고 나면 삼학도와 내항의 관광지 개발이 진행될 것이다.

석양을 바라보고 떠가는 배를 바라볼 수 있는 장소에 사람들이 모여 가볍게 담소를 나누며 차를 마시는 유럽의 노천카페를 삼학도에 옮겨놓아 보자 낙조와 석양을 바라보며 차와 식사를 할 수 있는 먹거리시장은 유물과 볼거리가 부족한 우리시의 관광분야에 중요한 관광자원이 될 것이다.

유럽의 노천식당이나 카페를 지나다보며 축제장내 먹거리식당의 테이블을 작은 천을 깔고 작은 화병을 놓아놓고 포크와 접시를 세팅하여 손님을 기다린다. 매년 해양축제가 열리면 목포를 대표하는 맛집들은 먹거리음식점을 축제장내에 개설한다. 사각천막위에 음료테이블을 설치하고 정신없이 음식을 판매한다. 흥어삼합이나 전어, 파전 안주가 주메뉴다.



우리도 유럽의 노천카페처럼 하얀 테이블보를 깔고 유리접시에 음식을 담아 내보는건 어떨까? 플라스틱 1회용 접시와 나무젓가락의 편리함을 버리는 것이 쉽진 않겠지만 조그마한 변화를 시도해 보았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보았다.

□ 4월 13일(월) 연수 9일차

오후 : 한국전쟁참전용사협의회 및 그랜드바자르시장 상인회 방문

아침 일찍 호텔을 나와 터키 한국전쟁참전용사협의회를 방문하였다.

터키 한국전쟁참전용사협의회를 방문한 이유는 한국전쟁발발한지 65년의 시간이 흘렀고 이제 몇분 남지 않은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기념품을 전달하고자 방문하게 되었다.



의회를 대표하여 운영위원장의 감사 인사말씀이 있었고 참전용사협의회장의 답사가 있었다. 백발의 협의회장님과 참전용사분들은 가슴에 한국전쟁참전 후 받은 훈장을 달고 계셨고 전투의 이야기부터 한강의 마지막 다리가 폭파되기 전 다리 경비업무를 맡았다는 이야기들, 전투에서 죽어간 동료들의 이야기, 항상 한국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과 한국전쟁중에 찍었던 빛바랜 사진을 보여주시기도 하셨다. 또한 한국에서 찾아와주신 우리 일행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해 주셨다.

혹시 한국정부에서 지원을 받는 것이 있느냐? 는 질문에 한국정부에서 지원 받는 것은 없고 한번씩 찾아와주는 한국분들과 기업에서 벽걸이 티비와 집기을 지원해 준 적이 있어 항상 한국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듣고 부끄러운 마음과 한편으로 가슴 깊숙이 감동이 밀려왔다. 내어주신 홍차와 사과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눈 후 준비해 간 전통부채와 도자기를 전달하였다.

중식을 하고 오후시간 그랜드바자르 시장을 방문하였다.

그랜드바자르시장은 1450년에 세워진 세계최초의 지붕이 있는 시장으로 미국 여행전문업체 트레블마크사에서 선정한 2014년 세계 50대 관광상품중 1위에 선정된 관광상품으로 시장의 연방문인원이 2014년기준 9250만명으로 기록되었다

우리연수단은 시장운영과 상인회 관련 자료중 벤치마킹할 부분들이 있는점을 찾아보기 시장상인회를 방문하게 되었고 시장건물 2층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상인회장과 이사님을 뵈게 되었다.

시장의 점포수는 4,000개, 시장종사자는 25,000명으로 보석, 의류, 양탄자, 화장품, 향료, 기념품, 가족등 다양한 품목을 취급한다. 여름철 1일방문객은 평균 50만명 겨울철은 30만명 수준이라고 한다.

상인회구성인원은 15명으로 시설관리와 운영관리로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상인회구성은 2년에 한번씩 선거를 통해 상인회장과 임원을 선출한다고 하였다. 시장의 중앙거리를 중심으로 7개의 거리가 종으로 나누어지고 횡으로 수십개의 좁은 골목이 있는데 아무 곳이나 다녔다가는 길을 잃기가 쉽다고 한다. 중앙거리폭은 20미터로 내부는 지하철의 지하도상가와 비슷한 인테리어로 구성되어 있다.

중앙거리상가 6평 기준 월임대료가 우리돈으로 2,000~3,000만원이며 4000여개의 상가는 모두 개인소유로 자율적으로 임대와 업종변경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시장이 오래되어 기와로 이어진 천정등의 보수가 필요할 것 같은데 보수가 필요시 어떻게 하는지 묻자 상인회에서 보수와 관련되어 지원하는 것은 없으며 각자 개인적으로 보수한다고 하였다.

또한 수없이 찾아오는 상인회방문객을 위해 주차장등 이용객 편의시설등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질문에 상인회장은

“현재 주차장은 2개소이나 아주협소하고 시장주변 어디를 파든 유적이 나오기

때문에 주차장등 이용객 편의시설 증축은 어려운 실정이다. 하지만 이스탄불을 찾는 관광객 대부분이 반드시 들르는 곳이 있는데 첫째 성소피아성당 둘째 블루모스크 세 번째로 들리는곳이 그랜드바자르이다 별도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상인회나 이스탄불시청에서 노력하는것은 없으며 그냥 사람들은 이스탄불에 오면 우리시장에 온다. 800년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라는 대답에 어떻게 보면 무책임하겠지만 시장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다는 것을 느꼈다.



시장내부와 지붕등을 안내받고 본격적으로 시장을 구석구석 살펴보았다.

그랜드바자르시장은 현지인들의 식료품이나 생필품을 파는 시장과는 거리가 멀고 수천만원을 호가하는 실크 양탄자부터 천원짜리 기념품까지 이스탄불을 찾는 관광객이 선물할 기념품등을 구입하는 거대한 시장이었다.

터키 전통문양이나 터키에 고유의 모양이 담긴 기념품들이 다양한데 시장상인의 말에 의하면 기념품 중 대부분은 중국산 이라고 한다

활성화된 전통시장은 농축수산물 중심이 아니라 관광객을 타킷으로 지역방문 기념품이나 선물등을 구입할수 있는 특산품가게들과 아기자기한 선물들을 진열하고 판매하고 있다.

우리 전통시장활성화를 위해 관광객들의 구미에 맞는 다양한 기념품을 구입할 수 있는 특산품과 기념품 전문점을 전통시장내에 배치하여 시장활성화를 도모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목포시에서 자유시장에 추진중인 남진먹거리시장 추진함에 있어 다양하고 아기자기한 선물용 기념품을 모아 판매하는 판매장이 있다면 사람들을 불러 모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 4월 14일(화) 연수 10일차

오후 : 이스탄불시청 도시재생과 , 살라파자르 크루즈항만

연수 마지막 일정은 오전에 이스탄불시청방문하여 도시재생과 도시계획 전반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사전에 질문지를 정리하여 보냈기 때문에 이스탄불 도시계획 절차 및 도시재생사업(유적지관리 개발등)에 대하여 1시간30분동안 프리젠테이션을 받았고 질의답변시간을 포함 2시간이상 소요되었다



이스탄불 관련 질의답변 내용이 많아 녹취록을 참고하여 기술하기로 한다.

이스탄불 시청 시정목표로

1. 이스탄불의 균형있는 발전을 통한 세계적인 도시로 성장
2. 말마라지역(해안) 잠재적 개발
3. 경제, 시민단체와 전략적 발전
4. 삶의질 향상
5. 사회봉사 강화

문화와 관광을 잘 조화시키면서 도시를 발전시키기 위해 7가지 주제선정

1. 자연과 문화
2. 관광
3. 경제, 기술과학교육
4. 컨퍼런스 및 박람회
5. 국제교류
6. 교통 및 운송
7. 체육 보건 패션디자인, 삶의질증진

역사와 문화를 보존하면서 세계적인 도시로 성장한 이스탄불의 도시개발시스템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의 대부분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어 문화재와 자연을 보호하면서 세계적인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 도시계획 수립시

첫째, 지역자치단체의 의견을 취합하고 각계각층의 전문가집단이 참여한 2회 이상의 공청회를 반드시 거치며 다양한 의견을 취합하여 의견 검토후 추진 각 단계마다 관광지역, 지진의 위험영역, 자연문화영역, 산림영역, 농업영역, 자연과 연결된 친환경영역, 자연위험(지진, 홍수)영역, 수자원관련영역, 지하자원영역으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사전조사를 실시

1/25,000 모형제작 및 공청회를 통한 시민들, 학계, 동주민의견 반영 및 1/5,000 모형제작과정을 거치며 지역을 이러한 영역별 색깔로 분류한내역을 지도로 제작하고 고지도등을 참고하여 문화재의 훼손을 최소화하여 도시개발을 진행합니다.

의회에서 1차 의견이 취합 결정이 되면 그것을 다시 한번 각 실무 위원회의 규정과 내용에 따라 검토한 후 의회에서 최종적으로 다시 결정하게 됩니다.

유적지 도시계획(재생)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이스탄불은 자연환경문화유산들이 많은 지역입니다.

2013년 유럽문화지역으로 선정되었고 다양한 국제적인 컨퍼런스, 박람회, 문화관광, 종교관광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관광에 관련된 지역이며 가운데 가장 큰 곳은 성곽등이 위치한 역사반도지구입니다

터키를 방문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역사반도지구와 그 인근을 방문하게 됩니다. 역사반도 지구는 그러한 이유로 가장 중요한 지역입니다.

이러한 지역에 속한 역사유적을 보존하는데 많은 신경을 쓰고 있으며 또한 그 안에 주거지, 사유지, 관광문화재, 교통, 편의시설 등을 잘 연계하여 이 지역들이 효과적으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제적 관광도시로 만들기 위한 도시계획 단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역사지구 도시계획을 위해 역사지구 도시계획실을 구성하고 지역을 조사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짜고 각 구청간에 속하고 있는 실질적인 유적들을 조사하기 위해 용역을 주어 다양한 분야를 조사합니다.

역사지구내 다양한 분야를 조사하고 계획이 준비가 되면 의회에 상정하여 의회 통과 후 시장님 결재를 받아 구체적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추진하면서 시민들의 반발등이 발생하게 되면 의회에 상정하여 조정하게 됩니다.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유적들의 보호와 보존을 목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한 지역을 정해 거기에 문화재라든지 자연적으로 있는것에 대하여 어떻게 보존할 것인지 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시키고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함

역사보존을 위해 도시를 10개구역으로 나누고 역사보존위원회는 유적지구 관련 전문가집단을 구성할 때 한분야가 아닌 고고학, 예술, 건축, 등 다양한 사람들로 위원회를 구성됩니다

같은 형식으로 해서 고고학지역이든 자연문화지역이든 역사지역이든 관련된 전문가 집단으로 여러 단위로 분류(유적지구, 자연지구, 주거지구, 고고학지구)구성하여 진행시킵니다.

2만오천분의 1의 계획이 수립된 이후 3개월 동안 5천분의 1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5000분의 1 계획을 세울 때도 2만5천분의 1 계획과 같은 조직으로 운영합니다.

다음은 역사반도 지역에 있는 땅들을 다양하게 조사한 내용입니다.

지도상의 계획에 역사적으로 중요한 유적들이 어디에 있는지 반영합니다.

보존위원회에서 검토 결정한 의견입니다.

고도라든지 토지라든지 건물들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가 기능들은 무엇인가를 분석합니다.

토지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고 도로망을 분석합니다.

도시의 복원이라든지 건축하고 있는 현황을 분석합니다.

이런 계획을 세울 때 옛날에 있었던 고지대들을 활용합니다.

1845년 지도입니다. 도시의 옛 모습을 참고합니다.

1875년도 지도입니다. 이렇게 옛지도들을 참고하여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다음으로 역사반도 지역에 있어 여러 가지 유적들과 옛 물길을 분석합니다.

역사반도가 어디지점에서 보았을때 어디까지 보이는가가를 지점에 따라 분석한 자료입니다.

저희가 이런 프로젝트를 준비할 때 14,000명의 앙케이트를 조사하여 반영한 자료입니다.

그리고 공청회를 열고 계획을 세우고 도시를 새로 계획하면서 도시에 있는 공원, 가구공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외곽으로 이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5000분의 1 계획을 세울 때 이러한 일들이 진행되게 됩니다. 이렇듯 다양한 의견과 앙케이트조사 분석을 통해 유적지내 도시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Q 유적보전을 위한 노력이 있다면?

A 유적보전프로젝트 운영

사람들이 거주하는 도시전체가 유적이기 때문에 다양한 유적보존프로그램 운영되고 있는데 6개의 연구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음
 터키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것들도 조사하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6개의 다양한 분야가 있는데 화학적부분을 조사하는 연구소, 돌, 목재등 여섯 개분야의 연구파트가 있음

유적분석 연구조사팀

유적분석연구소는 아주 작은 돌이나 목재 조각을 가지고 조사할 수 있는 연구실로 유적에 사용된 자재들이 어떤 것인지 고고학적 측면에서 다양하게 조사하고 연구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2007년부터 2014년까지 1003개의 목재, 석재등 복원용 자재를 연구조사를 하였습니다.

이스탄불뿐만 아니라 메카, 카베까지 연결하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실적에 대하여 분기별로 책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좀전에는 연구 조사지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유적보호 전문가들과 함께 작업을 하며 교육이 이루어지는 시스템 유적보호 인력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통분야를 보존하기위해 중요한 두가지 교육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돌과 나무에 대하여 전통적인 방법으로 유적들을 보존하는 기술을 교육시키면서 유적들을 보존하는 시스템입니다.

석재 연구 프로젝트

돌을 연구하고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교육도 시킵니다.

젊은 사람들에게 교육을 시켜서 다양한 분야로 적용해보는 목적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문화관광부에서 지정한 교육프로그램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5개월 동안 600시간을 교육을 하는데 여기에는 2년제 대학을 나온 복원관련과를 나온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교육 관련된 책이며 매년 20명씩 현재는 15명으로 하여 15개의 이스탄불의 문화유산을 선정하고 그것에 대하여 연구하고 조사하게 됩니다.

학생들을 교육하는 장면입니다. 학생들은 복원에 참여하며 유적을 청소, 관리, 복구하게됩니다.

예전에는 우물이 중요하여 마을마다 있었는데 옛우물을 복원한 실적입니다. 지역별로 방치된 유물들을 전통기술을 가진 전문가들과 교육받은 학생들이 함께 복원하며 후세들에게 기술을 전하고 교육하는 과정입니다. 매년 세미나도 진행하고 책들을 출간하여 결과물을 무료로 배포하게 됩니다.

세미나 및 젊은이들이 활동하는 사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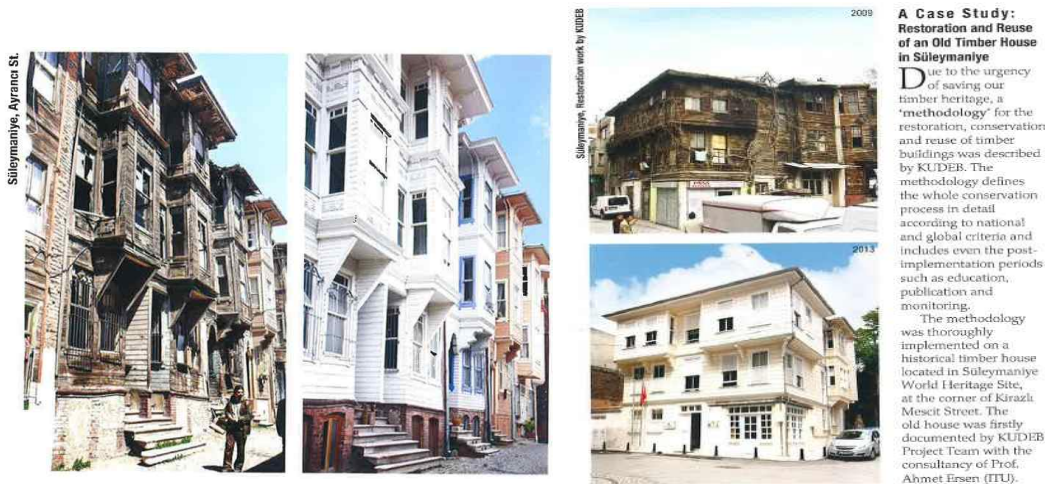
목재 연구 프로젝트

이스탄불은 나무로 된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는 2007년에 목재연구소를 설립하고 목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목재 전문가들을 양성하는 것이 목적이며 이러한 목재가공 기술을 더욱 발전시키고 효율적으로 보존하기 위함입니다.

팀버 트레이닝 워크샵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전문대이상 고고학관련 분야를 전공한 사람들 중에서 선발하고 교육시키는데 열가지의 목재보존법부터 발전까지 다양하게 공부하게 됨
 전통적인 목재공예와 관련하여 이론과 맞물려 함께 교육을 실시
 이렇게 교육을 시키면서 실질적으로 유물을 보존작업하게 됩니다
 역사적 가치가 있는 64개의 건물들과 맞물려 진행됨 학생들과 실질적으로 작업하였습니다. 복원작업 내역입니다.



**A Case Study:
 Restoration and Reuse
 of an Old Timber House
 in Süleymaniye**
 Due to the urgency of saving our timber heritage, a "methodology" for the restoration, conservation and reuse of timber buildings was described by KUDİEB. The methodology defines the whole conservation process in detail according to national and global criteria and includes even the post-implementation periods such as education, publication and monitoring.
 The methodology was thoroughly implemented on a historical timber house located in Süleymaniye World Heritage Site, at the corner of Kirazlı Mescit Street. The old house was firstly documented by KUDİEB Project Team with the consultancy of Prof. Ahmet Ersen (ITU).

저희 전문가와 학생들이 150년된 건물을 작업한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이런 예전 것들을 작업하면서 저희도 배우지만 전통가공기술의 전수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저희는 이러한 작업들을 터키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작업을 하고 있음
 이것은 일본에 소재한 박물관에 샘플로 만들어 진열한 터키전통가옥 사진입니다.
 일본에 있는 박물관에서 세계의 다양한 건물 31개를 진열하였는데 저희가 가서 작업한 내용입니다.
 현재 이스탄불 광역시의 문화유적보존을 위해 목재가공 관한 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음
 그리고 목재가공이나 목재관련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워크샵등을 진행하여 여기에 전문가와 학생과 전통적인 목공예와 목재건축과 관련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축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하는데 참여인원의 75%이상 자기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작업하고 완성된 것들은 모아 세미나, 전시회, 책자출판등 사업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면서 관심을 유도

수단, 이태리, 러시아, 재팬, 이라크등 많은 국가들이 유물보전을 위한 저희 시스템에 관심을 가지고 방문이 진행되고 있으며



저희가 목재와 돌을 계속 배우고 보존하면서 이러한 것들을 잃어 버리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음

관광객유치를 위해 특별하게 역점을 두고 추진중인 내용이 있는지?

저희가 관광객을 위해서 무엇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있는것을 잘 보존하고 유지하면 관광객들이 자동으로 그것들을 보기 위해 오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파워포인트로 보여드린 것은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샘플과 견본으로 작업을 하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주민들이 알고 참여함으로써 다양한 유적들이 보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리고

그래서 이것들을 잘 이용하여 이곳의 사람들이 편하게 생활을 유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들의 일입니다.

유적지를 개발하면서 주민을 이주시키는 경우가 있는지?

여기는 전체가 역사유적지이기 때문에 월 파면 바로 나오기 때문에 사람을 이주시킬 수는 없고 거기서 건축을 하다 무엇이 나오게 되면 협의하여 보존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시외곽으로 환경보호를 위해 가구점이나 공장등을 시외곽으로 이전시키는 경우 보상은?

여기에서는 사실 그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바로 말씀 드릴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공단으로 이주한다든지 세금을 감면한다든지 직원들의 세금혜택의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개인소유 오래된 가옥을 보수할때 상당한 비용이 들것으로 보이는데 비용처리는 어떻게 하는가?

지금까지 보여드린것은 연구교육목적이며 시예산을 가지고 한부분이고 도시의 많은 부분들은 연구와 교육예산으로 진행한 사례입니다.

이것은 시가 이쪽 기관에서는 어떻게 해야되는지 샘플을 보여주는 개념이고 개인 고택을 보수 하고 싶다면 정부에 신청하여 용자를 받아 보수를 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 세금을 감면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끝.

이스탄불 시청의 주요 벤치마킹 사항을 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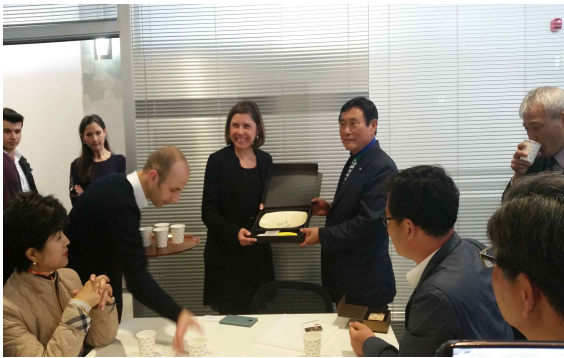
1. 도시계획 수립함에 있어 다양한 의견청취 및 고지도 분석 및 역사서 분석(옛물길, 전투등)을 통해 지하 매장유물까지 다양하게 검토하고 다방면의 정보수집을 통해 유적을 보존하면서 체계적인 도시계획을 수립
2. 도시계획시 협오시설 및 공장은 세금지원등을 통해 시외곽으로 이전하는 정책 추진
3. 세계적인 교통혼잡 도시로 교통시스템 확대에 노력하고 있으나 유적과 유물을 보존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원칙 준수
예시) 해안을 매립하여 도로 개설하여 기존 유적 훼손 최소화
4. 이스탄불의 주요관광상품인 보스포러스 해협의 관광브릿지의 경우처럼 삼학도와 내항을 복층의 관광브릿지로 연결하여 다리 아래로는 배들이 지나다닐 수 있도록 하고 교량의 1층은 호프집과 카페등을 배치하고 관광객들이 휴식을 취하고 교량의 차량통행 및 정차가 가능한 상판2층에서 1층 카페촌으로 내려갈수 있도록 조성
브리지는 경관조명등을 설치하여 야간관광상품으로 개발하고 삼학도공원과 내항을 집중 개발하여 관광을 활성화하는 방향이 검토되었으면 함.
5. 전통문화와 유적을 보존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인력양성 프로그램 운영으로 역사보존의 실질적 방안을 마련하고 동시에 다양한 창작

시도를 통해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는 이스탄불의 문화재 관리방식을 보고 이스탄불처럼 고유적은 아니더라도 우리시의 일제강점기 근대문화유산도 체계적인 보존과 전문인력양성 프로젝트가 도입되어 방치되고 사라져가는 근대문화유산을 관리보전하고 복구하여 미래 가치있는 문화관광 상품으로 개발해 나아가야 할 것임.



오전 이스탄불시청 방문을 마치고 중식후 오후 살라파자르 크루즈 항만공사를 방문하였다.

크루즈항만 견학을 이번 연수주제중 하나로 잡은 이유는 작년 국내연수때 목포항의 발전방향”이란 주제로 김삼열 전 항만청장님을 모시고 강의를 들었는데 목포항의 미래비전으로 홍콩, 중국, 한국, 일본을 잇는 서남해안의 선도적인 크루지 기항지 전략이 필요하다는 말씀과 해양관광인프라 구축, 국비유치를 통한 해안선의 개발에 대해 강조하였는데 연수국가들은 지리적 위치로 인한 크루즈관광이 활성화 되어있어 금번 연수의 소주제를 크루즈항만산업 활성화 사례 분석으로 잡았다.



살라파자르 크루즈항만공사는 국영항만으로 관리되다가 4개월 전 개인기업이 공개입찰을 통해 민간위탁 받아 시설보수 및 크루즈전용항만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크루즈항만 인프라구축을 위해 시설보수가 진행중이었다.

우리는 먼저 항만공사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듣고 크루즈항만을 통한 입·출국절차를 체험하고 항만인프라시설 견학을 마친 후 부사장님 면담을 하였다. 살라파자르 크루즈항 민간위탁 입찰에 참여한 배경으로 앞으로 지중해 크루즈 관광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는 예견하고 크루즈 항만을 인수하였다고 한다.

살라파자르 크루즈 항만 주요현황을 보면

접안시설 1100m로 수용능력은 350m 크루즈 4대
 근무인원은 45명(세관, 출입국사무소 직원별도)
 운영자선정 : 공개입찰 실시 민간위탁
 크루즈 입출항현황 일평균 1대 입항,
 일평균 1,600명 이용, 년이용객은 60만명임

우리나라의 크루즈항만 시설현황을 보면

2005년 국내 크루즈 입항횟수는 40회(3만명)였으나 지난 10년동안 매년 50%이상의 성장세를 보여왔다.

2014년 해운항만물류통계센터 자료를 보면 2014년 크루즈를 이용하여 국내에 들어온 여행객은 104만명으로 국적별로는 중국 87.8% 일본 3.2% 미국 1.9% 한국 1.2%로 크루즈선 입항횟수는 461회를 기록하였다고 한다

현재 국내에서 운영중이거나 계획중인 크루즈전용부두 현황을 보면

PDAC 항만수요예측센터
Port Demand Analysis Center

<표 III-8> 국내 크루즈 전용부두 현황 및 계획

구분	접안능력	시설규모	현황
인천 남항	15만 톤급 1선석	안벽 360m	'12.8월 국제여객부두사업 착공 (민자 4,405억 원, 정부 1,400억 원)
여수 신항	15만 톤급 1선석	안벽 400m	'14년 12월 완공
제주 외항	8만 톤급 1선석 10만 톤급 1선석	안벽 740m	·8만 톤급 운영 중 '13.11월 크루즈터미널 착공 (정부 402억 원)
강정항	15만 톤급 2선석	해군기지 방파제	·부두시설 공사 중 (국방부 5,029억 원) ·크루즈터미널 공사중 (정부 534억 원)
부산항	북항	10만 톤급 1선석	안벽 360m '12.10월 국제여객터미널 착공 (BPA 2,638억 원) '11.8월 국제여객부두 착공 (정부 814억 원)
	동삼동	8만 톤급 1선석	안벽 360m ·8만 톤급 운영 중 ·22만 톤급으로 확장 계획

크루즈전용부두를 갖춘 항만은 부산(2개소, 10만, 8만 톤급 각 1선석), 제주(1개소, 8만톤급 1선석), 여수(1개소, 15만톤급)로 4개소이다.
 앞으로 국내 크루즈항만 건설계획을 보면 앞으로 2020년까지 9개항만에 크루즈전용부두 10개 선석, 겸용부두 3개 선석으로 13개의 선석을 확보할 계획에 있다고 한다.
 자료를 보면 국내에 기항하는 크루즈 이용객의 88%가 중국인으로 우리

목포시도 일본-한국-중국을 왕복하는 아시아 크루즈 항만 기항으로 적절한 자리에 위치하고 있어 .

빠른 시일내 크루즈항만이 포함된 목포 해안과 항만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국비유치 및 적극적인 국비 유치노력으로 크루즈항만 기항지로써 목포항을 체계적 발전시켜 나아가야 할 것이다.

크루즈전용항만 인프라도 중요하지만 이에 발맞춰 해양유람선, 요트, 카누, 스쿠버등 해양레저 관광기반 아이템 구축 및 관광객들이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를 만들어 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유달산, 목포대교, 평화광장, 해양문화축제, 외달도, 노을공원, 갯바위문화의 거리, 평화광장, 춤추는음악분수, 옥암수변공원, 북항수산물복합센터등 먹거리타운등 기존의 관광인프라와 더불어 현재 추진 또는 검토중인 새로운 관광상품 가톨릭성지화사업, 레저낚시어항활성화, 유달산 하단 카페촌 개발, 남진야시장과 기념품전문시장, 수상레저전문센터, 삼학도마리나항만공원, 해상케이블카, 차이나타운거리조성, 근대문화유산거리등 관광객 유치할 수 있는 관광상품개발에도 집중하여 명실상부한 해양관광도시로 개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연수총평

● 시정 현안문제 중심 연수 실시

2015년 의원공무원연수를 추진함에 있어 터키 그리스팀 12명의 의원은 연수 목적을 도시재생분야, 전통시장활성화, 유달산케이בל카 타당성검토, 크루주 기항지 인프라 도입검토 등 시정 현안문제에 관해 주제를 선정하여 연수 방향을 정하고 목포시와 협의를 통하여 연수 후 우수사례를 우리시 행정에 접목함에 있어 집행부실무담당과 함께 고민하여 현실적인 대안과 미래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바쁜 연수 일정중에서도 방문지정보 및 질문사전 조율등 방문시설에 대한 사전회의를 실시하여 효과적인 회의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하였다.

● 연수업체 선정 및 지역업체 추진시 미비점 개선방안 마련

해외연수를 계획할 때마다 중요하게 대두되는 것이 연수업체의 선정이다. 지역업체를 선택하는 경우 기관방문 섭외가 어려운 경우가 많고 전문 연수업체를 통하는 경우 기관방문 및 섭외에 강점이 있으나 지역여행업체 배제로 인한 지역경제 유발효과가 감소된다. 연수를 준비함에 있어 지역경기활성화에 힘쓰고자 지역업체 공개공모를 실시하여 선정업체와 방문지를 조율하였다. 이번 연수내용중 기관방문의 경우 민간단체 기관방문의 경우 여행업체에서 섭외하고 공공기관 3개의 기관에 대해서는 대사관과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 이스탄불시청과, 살라파자르항만공사, 앙카라도시케이בל카 관리센터를 연수팀 자체에서 섭외하여 방문하여 향후 연수방문지 선정의 범위 확대

● 목포만의 향기가 있는 관광 활성화

터키와 그리스는 고대국가로 문화자원 및 고대유적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산재되어 있어 자연 그대로를 보존하고 고대의 유적을 발굴하고 복원하여 관광 상품화하는 상품들이 대부분이다. 또한 그 유적 자체가 세계사의 한페이지를 장식하고도 남을 찬란한 역사의 현장이며 과거에는 대자연의 엄청난 재난이었지만 재난의 현장이 그대로 보존되고 위대한 세계문화유산들로 지정되어 관광산업이 국가산업의 핵심이 된 나라들을 돌아보며 터키와 그리스도 관광산업이 이제 시작에 지나지 않음을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듯하다. 대부분이 석조 건물로 몇 백년이 지나도 원래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부분적으로 보수, 보완만 한다면 훌륭한 관광자원이 되므로 관광객을 위한 주차시설이 없어도, 인공적인 시설을 가미하지 않아도 밀려드는 관광객을 보면서 자연그대로그 재생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터키와 그리스와 같이 관광요소가 산재해 있는 경우와 목포시의 관광아이템을 비교를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으나 하드웨어적인 유적들은 부족하더라도 관광객들이 원하는 경쟁력 있는 하드웨어적 관광인프라와 소프트웨어적 관광요소 역시 관광객의 유치에 중요함을 간과해서는 안되겠다 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다.

목포시의 경우 해양을 중심으로 한 관광인프라 구축을 통한 관광산업의 활성화만이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수 있는 유일한 해법임을 우리 연수단은 새삼 느끼게 되었다.

현 것을 모두 버리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낼려면 소중하지만 알지 못했던 다른 것들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다.

인터넷에 “목포관광 산동네”를 검색하면 온금동을 방문하는 블로거들이 많은 것을 본다. 정작 목포사람들은 부끄러워 하지만 외지인들은 목포에 와서 온금동의 미로같은 좁은 골목을 비집고 다니며 사진을 찍어 블로그에 올린다. 목포를 구경하고 싶은 사람들은 인터넷을 검색하여 목포관광정보를 수집하고 또다시 온금동을 방문지를 정한다.

1박2일 목포관광 여행기 블로거 공모를 하여 우수 방문기를 시상하고 시관

광안내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목포를 방문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시의 관광정보를 제공하고 새로운 관광아이템과 뷰포인트들이 발굴되어 관광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야 겠다.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다양한 조사와 보존을 위주로 하는 이스탄불의 고대 역사유적들과 비교될 수 없겠지만 우리목포만의 낭만과 추억이 서려 있는 목포만의 매력을 가진 관광상품들을 발굴, 보존하고 새롭게 만들어 보자 재개발사업이 추진중인 온금동 산동네 골목길은 머지않아 사라지겠지만 이스탄불의 도시계획을 조금이라도 벤치마킹하여 다양한 방면의 의견을 수렴하고 보존가치가 있는 것을 최대한 살려가면서 도시를 개발해 나가는 선진행정이 적용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